

## 중세아랍의 무신론사상

리영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행철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보적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제한성과 미숙성을 똑똑히 가려보는것이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416페이지)

중세아랍에서 제기된 무신론사상을 옳바로 해명하는것은 동방무신론사상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서뿐만아니라 유럽중심주의를 타파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세아랍에서 무신론사상은 주로 동방소요철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중세아랍에서는 고대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의 유물론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학파를 동방소요철학자들과 불렀다.

동방소요철학자들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시인하고 신에 의한 세계창조설과 예정성을 부인하는데로 나갔다.

중세아랍에서 무신론사상은 파라비와 이븐 시나, 이븐 루슈드에 의하여 대표된다.

아브 나스르 무함메드 파라비(870-950)는 동방소요철학을 처음으로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제기한 철학자이다.

파라비는 세계는 《신의 류출》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세계의 제1원인으로만 된다는것이다.

파라비는 신이 세계의 제1원인이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이 독자적이고 자연의 현상들도 자연발생적과정이기때문에 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파라비의 이러한 견해는 이슬람교가 지배하고있던 당시로서는 불가피한것이였다. 당시에는 신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이 없이는 그 어떤 철학저서들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신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사물들이 1차적물질과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았다. 물질은 영원하며 변화발전과정에 제1원인인 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견해였다.

파라비가 자연에 대한 설명에서 신의 역할을 일정하게 제한한것은 알라흐신의 전지전능에 대한 교조주의적관점을 주장하는 이슬람신학자들의 견해와 대립되는것이였다.

파라비는 세계의 물질성과 함께 그 자연적합법칙성을 인정함으로써 당시의 종교신비주의를 타격하였다. 《모든 천체들은 바로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공통된 본성을 가지고있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점성술자들의 신비주의적세계관을 비판한것이였다.

점성술자들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천체들의 이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어떤 별들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또 어떤 별들은 불행을 가져다준다고 설교하였다.

파라비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천체들의 본성은 어디서나 다 같으며 천체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주는것은 오직 천문학과 수학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저승생활에 대한 점

성술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거짓이라고 비난하였다.

파라비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종교신비주의적견해도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의 고유한 영혼을 이성적영혼으로 보고 그것을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적능력으로 간주하였다.

파라비는 영혼의 발생발전을 물질의 활동과정으로 본데로부터 영혼은 육체보다 선행할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플라톤의 영혼설을 반대하면서 《영혼은 플라톤이 주장하듯이 육체보다 먼저 존재할수 없다.》고 하였다.

파라비는 영혼이행설을 반대하였다. 인간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중세아랍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하나였다.

영혼불사를 부정한 파라비는 인간이 리론과학의 지식에 기초하여야만 최대의 행복을 누릴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인간영혼이 죽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인간이 죽으면 물질과 다른 그 어떤것으로 된다는 주장들은 독특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파라비의 무신론적견해는 신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지만 인간과 현실을 결합시키고 자연과학과 철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신앙의 절대적지배가 확립되어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종교신비주의를 타파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파라비의 무신론사상은 이후시기 이븐 시나의 무신론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븐 시나(980-1037)는 동방소요철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이븐 시나는 《치료의 책》, 《구원의 책》, 《지식의 책》, 《동방철학》을 비롯한 200여권의 저서를 집필하여 동방소요철학을 발전시키고 중세말기 유럽의 근대사상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파라비의 무신론사상을 계승한 이븐 시나는 우주가 자체의 구조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법칙들에 의해 운동한다고 하였다. 원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으며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세계, 인식할수도 파악할수도 없는 세계란 있을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신이 인과법칙이 아니라 자의에 따라 세계를 만들어내며 세계에는 합법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슬람신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한것이였다.

이븐 시나는 이슬람교의 세계창조설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존재는 자연현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그는 신이 자연에 최초충격만을 주며 그후에는 아무것도 할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세계가 일단 운동하면 자기자신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이븐 시나는 이슬람신학자들의 원자론을 반대하였다. 그는 이 원자론을 환상적인 리론의 원천이며 코란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그가 관심을 돌린것은 공허에 관한 사상이였다. 그는 공허를 인정하면 공허의 존재뿐아니라 그 본질과 량, 실체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물질밖의 연속적인 공간, 거리로 된다고 하는 공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븐 시나가 물질과 공간을 분리시키고 신의 존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 이슬람신학자들의 견해를 반대하면서 물질밖의 공간을 부정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븐 시나는 신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종교적교리를 비판하였다. 물질밖

에 공간이 없듯이 물질을 떠난 시간도 없다고 본 그는 신이 자연의 창조자로서 자연에 대립되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의 전일체를 이룬다고 하였다. 즉 신은 자연에서 일반적인 것과 합법칙적인것의 원인이며 따라서 물질세계는 신이 없으면 존재할수 없으며 신도 물질세계가 없으면 존재할수 없다고 하였다. 이븐 시나의 이러한 범신론적견해는 신의 절대성과 전지전능성을 주장하는 이슬람신학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이븐 시나는 수를 신비화하는 이슬람신학자들의 주장도 반대하였다. 당시 이슬람신학자들은 수를 세계의 시원으로 내세우는 피다고라스학파의 종교신비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면서 물질에 대립되는 수는 객관적가치를 가지는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물질에 선행하는 선형적인 기하학적도형이 존재한다고 설교하였다.

이것을 반대하면서 이븐 시나는 《참다운 철학학설에 의하면 점은 선속에, 선은 또 그것대로 평면에, 평면은 또다시 물체의 형태속에, 물체는 물질속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 견해는 물질로부터 그 형태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마치도 물질의 형태가 신에 의하여 부여된것인듯이 설교하는 이슬람신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물질과 그 기하학적도형들이 뗄수 없다는것을 강조한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기하학에 의하여 연구되는것들은 선, 평면, 3차원적물체들이다. 그렇다면 이 대상들이 본질에 있어서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븐 시나의 사상은 비록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였지만 물질의 객관성과 1차성, 영원성을 주장하고 신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인간운명의 예정을 설교하는 이슬람신학의 교리들을 반대하는데서 일정한 긍정적역할을 놀았다.

이븐 루슈드(1126-1198)는 중세아랍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론철학자이다.

이븐 루슈드는 신에 의한 세계창조설을 반대하였다. 그는 우주가 시초와 종말을 가지지 않으며 세계에는 절대적발생도, 절대적소멸도 없다고 보았다. 세계는 무로부터 생겨날수도, 무로 소멸될수도 없다고 본 그는 세계에 존재하는것이란 영원한 원소들의 이러저러한 결합과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변화들뿐이라고 하였다.

이븐 루슈드는 신에 의한 세계창조설을 부정하기 위하여 세계가 4가지 물질적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4원소에는 흙과 불, 물, 공기가 속한다. 그는 비중이 서로 다른 이 물질적요소들이 천체들의 운동에 의하여 혼합되면서 대립물들을 산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원소들의 혼합이 광물에서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식물이 생겨나고 보다 더 균형적이면 동물령혼을 가질수 있는 동물들이 생겨난다. 그는 육체가 가장 완벽한 균형성을 가지면 보다 조화롭고 유연한 령혼의 힘인 이성적령혼을 낳을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산생된다고 하였다.

이븐 루슈드는 인간과 그의 성격, 능력은 물질적요소들이 가장 조화롭게 혼합된 결과이며 인간도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이븐 루슈드는 신의 지배자적역할을 부정하기 위하여 자연에는 엄밀한 필연성이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체 자연은 영원히 주어진 변함없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의 절대적지배를 설교하는 이슬람교의 정통원리들에 배치되는 견해였다.

이븐 루슈드는 합법칙적으로 운동하는 자연에는 신의 련속적인 창조행위가 불필요하며 세계는 기적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필연적인 사물들에는 작용인

도 창조자도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이 인과적련관박에서 존재하면서 모든 사물들의 제1원인으로 된다고 하는 이슬람교정통신학자들의 주장을 부정한것이다.

이븐 루슈드는 인과적련관의 필연성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물질세계밖에는 인과적련관으로부터 벗어난 그 어떤 절대적존재도 없다고 하였다.

이븐 루슈드는 운동의 원천을 신에게서 찾는것도 반대하였다. 운동의 원천이 물질자체에 있다고 본데로부터 그는 물질로 하여금 운동발전하게 하는 그 어떤 형상인도 물질밖에는 없으며 물질 그자체속에 있지 않는것은 물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물질은 형태이전에 존재하며 형태는 물질의 발현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븐 루슈드는 구체적인 대상에서 형상과 물질은 통일속에 존재하지만 물질은 다양한 형상을 취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그것이 바로 물질의 명백한 우월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븐 루슈드는 물질과 형태문제를 다루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결론이 바로 형태는 자체의 고유한 기원을 가지지 않는다는것이다. 그 근거는 물질자체에 근원을 둔 요인만이 물질을 변화시킬수 있다는것이다.

이븐 루슈드는 물질자체에 들어있지 않는것은 물질을 변화시킬수 없다고 봄으로써 물질에 대한 선행한 유물론철학을 보다 발전시켰을뿐아니라 종교신비주의가 발붙일수 있는 여지를 더욱더 축소시킴으로써 무신론발전의 이론적지반을 확대하였다.

이븐 루슈드는 물질세계와 운동변화를 통일시켰을뿐아니라 물질과 그 동력도 통일속에서 봄으로써 신의 세계창조력을 부정하였다. 그는 물질세계는 형체뿐아니라 그 동력도 산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븐 루슈드의 사상은 범신론적요소와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있지만 중세아랍의 무신론사상발전에 흔적을 남기였다.

중세아랍무신론사상은 유럽에서 봉건사회말기와 근대초기 무신론사상의 발생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